

배우 최민식 스타 페르소나에 관한 연구

영화 속 캐릭터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Actor Choi Min-sik's Star Persona

Focusing on character analysis in the movie

주 저 자 : 심재현 (Shim, Jae Hyun)

광운대학교

bgry73@naver.com

Abstract

Actor Choi Min-sik owns the character of a rare villain despite being the lead actor among the nation's actors. When he played Lee Soon-shin in the movie Myeong-ryang, the reaction around him was mostly worry and concern. However, Choi Min-sik rewrote history with the nation's top box office hi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role and genre that made Choi Min-sik a star. The research range selected only box office-checkable films from 1989 to 2017. The reason is that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box office was the reaction of the audience and was judged on the objective basis that shaped his Persona. The method of analysis was to divide his character into evil, non-evil, and anti-war roles, and to examine the comparison between solo and co-starring within them. Second, we looked into the genre of the movie.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higher success rate for co-stars, villains and crime, action and thriller genres to be combined

Keyword

Actor Choi Min-sik, Star personas, Character analysis, Movie

요약

배우 최민식은 우리나라 배우 중에 주연배우임에도 불구하고 흔치 않은 악역 이미지의 캐릭터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 그가 영화 <명량>의 이순신 역을 맡았을 때 주변 반응은 걱정과 우려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민식은 대한민국 최고의 흥행 1위 영화로 역사를 다시 썼다. 이처럼 지금의 최민식을 스타 페르소나로 만들어준 역할과 장르가 무엇이었는지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범위는 1989년부터 2017년까지 출연한 영화 중에 흥행 확인이 가능한 영화만을 선별했다. 이유는 흥행의 성공 유무가 관객의 반응이고 그의 페르소나를 형성시킨 객관적 근거로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분석방법은 첫째, 그의 배역을 악(惡) 역, 非악역, 반전 역으로 구분하고 그 안에 단독 주연일 때와 공동 주연일 때의 비교도 조사했다. 둘째, 배역에 따른 장르는 무엇이었는지 흥행 유무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공동 주연을 하고 악역을 맡고 범죄, 액션, 스릴러의 장르가 조합을 이루면 흥행을 할 수 있는 성공률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대상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 2-1. 최민식에 대해서
- 2-2. 스타 페르소나

3. 최민식의 캐릭터별 사례분류

- 3-1. 영화 속 非악역 캐릭터
- 3-2. 영화 속 악(惡)역 캐릭터
- 3-3. 영화 속 반전 캐릭터

4. 결론 및 과제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700여만 명의 기록적인 관객을 동원한 영화 <명량>(2014).¹⁾ 개봉 당시, 대다수 언론은 흥행 성공 요소의 하나로 최민식의 연기를 거론한 바 있다. 하지만 제작 과정에서 그의 캐스팅을 우려한 영화계의 시선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이지만, 과연 이순신과 어울릴까’ 하는 의문 때문이다.

같은 의문을 품은 일반 관객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순신’이 갖는 성웅(聖雄)의 이미지와 <명량> 이전에 관객에게 각인된 최민식의 이미지는 확실히 쉽게 연결되진 않는다. 간략히 말해, <명량> 이전에 구축된 최민식의 주된 이미지는 선하거나 정의로운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

따라서 <명량>을 통해 최민식은 관객의 뇌리에 있던 그의 ‘악한 카리스마’를 ‘선한 카리스마’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상당히 유의미한 사례이다. 관객 사이에서 한번 형성된 배우의 페르소나(persona)는 바꾸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²⁾ 주지하다시피, 영화비평 용어인 ‘페르소나’는 ‘배우가 연기 생활을 하면서 맡았던 여러 배역의 인격으로부터, 또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생활의 요소를 가지고 개발한 자아상(自我像)’을 의미한다.³⁾ 이와 관련해, 미국의 영화학 교수 존 벨튼은 “모든 배우가 페르소나를 구축하나, 전부 스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벨튼은 스타의 이미지가 ‘특정 배역에 뿌리를 두기도 하지만, 이를 넘어 잡지, 신문 등 2차적 매체를 통해서도 확립된다고 지적한다. 부연하여 스타의 페르소나가 ‘2차적 매체를 통해 유통되고 거기서 배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고 보았다.’⁴⁾

이런 면에서 스타 페르소나 분석은 광범위하고 정교한 작업을 요한다. 다만, 본 연구는 최민식이 지닌 스타 페르소나를 배우론에 입각해 치밀하게 분석한 것은 아니다. 본 연구자는 스타 페르소나의 형성 근간을 출연작의 흥행성으로 간주한다. 앞서 벨튼이 말한 2차적 매체도, 결국 대중(관객)이 흥행을 계기로 강하게 인식하는 배우의 이미지를 유통의 원천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견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민 배우’ 최민식의 필모그래피를 흥행 성공 유무로 살펴면서, 흥행을 결정하는 변수로 ‘역할’, ‘장르’, ‘파트너(partner)’가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1-1. 연구 대상 및 방법

현재까지 개봉된 최민식의 영화 출연작은 총 28편이다. 본 연구자는 그중 1995년까지 개봉된 6편의 영화를 역할 비중이 작았거나, 주연이라도 크게 존재감을 보이지 못해 제외했다. 더불어, <태극기 휘날리며>, <마당을 나온 암탉>, <끝과 시작> 3편 또한 카메오 출연 등의 이유로 제외했다. 또한, <조용한 가족>의 경우는 조연으로 출연했지만 주연과의 비중과 차이가 없어서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런 작업을 거쳐, <넘버 3>(1997)부터 <침묵>(2017)까지 19편을 연구 대상으로 정했다.

19편의 흥행 유무는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서 공개된 연도별 박스 오피스 순위 및 관객수를 토대로 했다. 또한, ‘한국영화 데이터베이스(KMDB)’에서 공개된 관객수, 언론매체의 흥행 관련 기사 등도 참조했다.

본 연구자는 상기한 대로 최민식이 출연한 영화의 흥행 변수를 ‘역할’, ‘장르’, ‘파트너(partner)’ 세 가지로 설정했다. 우선, ‘역할’의 경우도 세 갈래로 나누었다. 관객은 일반적으로 ‘악역’과 ‘비(非)악역’으로 배역을 인식하는 것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첫째, 선한 역할이나 관객의 도덕적 판단상 크게 문제가 없는 역할일 경우, ‘非악역 캐릭터’로 판단했다.

둘째,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역할일 경우, ‘악(惡)역 캐릭터’로 판단했다.

셋째, 영화 전개 도중 ‘선-악’ 혹은 ‘악-선’으로 변하는 캐릭터를 ‘반전 캐릭터’로 판단했다.

‘장르’ 분석의 경우, 관객의 접근성이 높은 포털 사이트(네이버)의 기준을 토대로 했다. ‘파트너(partner)’의 경우, 그 배우의 비중에 따라 최민식이 단독 주연한 것인지, 공동 주연한 것인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전제를 통해, ‘역할’, ‘장르’, ‘파트너(partner)’에 따른 흥행 성공률을 분석했다.

1) 2019년 8월 시점에서도, <명량>은 국내 개봉된 한국영화, 외국영화 통틀어 가장 많은 관객수를 보유하고 있다.

2) 김시무, 스타 페르소나, 아모르문디, 2018, p.150

3) 강준만, 전사인 지식노트, 인물과 사상사, 2008, p.95

4) 전계서, p.95

2. 이론적 배경

2-1. 최민식에 대해서

1962년생인 최민식은 1989년 영화 <구로 아리랑>에서 조연으로 데뷔한다. 이후 TV 드라마 <아망의 세월>(1990)에서 '구송' 역을 맡으며 시청자에게 얼굴을 알리고, <서울의 달>(1994)에서 한석규와 호흡을 맞추며 다시 한번 대중에게 각인된다. 주로 TV 드라마에서 활약했던 최민식이 영화로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그 존재감을 발한 것은, <넘버 3>(1997)에서 조폭들을 '때려잡는' 강패 검사를 맡으면서다.

이후 <파이란>(2001)에서 맡은 3류 양아치 역이 호평을 받으면서, 청룡영화제에서 첫 남우주연상을 수상한다. 이어, 2002년 <취화선>, 2003년 <올드보이>가 칸 영화제에 초청되면서 연기력을 더욱더 인정받는다. 그러나 <친절한 금자씨>를 끝으로 4년 간의 공백 기간이 생긴다.

스크린에 컴백한 것은 2009년 독립영화인 <히말라야, 바람이 머무는 곳>을 통해서다. 그 뒤 <범죄와의 전쟁>으로 청룡영화상, 부일영화상,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 등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으면서 진정한 복귀를 알렸다. 특히 청룡영화상에서는 신영균, 문성근, 송강호와 함께 3차례나 남우주연상을 받아, 최다 수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후 <명량>(2014)은 1,761만의 관객을 모으며, 한국영화 최고의 흥행작으로 기록된다. 같은 해에는 릭 배송 감독의 <루시>로 할리우드에 첫 진출하였으며, <대호>, <특별시민>, <침묵>에 출연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최민식과 비슷한 시기에 영화의 궤를 같이 한 '천만 배우' 송강호는 봉준호 감독과 오랫동안 파트너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민식은 출연한 영화에서 동일한 감독과 2번 이상의 작품을 하지 않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2-2. 스타 페르소나

영화 작품 속의 캐릭터는 극 중에서 '작중 인물(personnage)'이자, '등장인물을 의미하는데, 그중 '작중 인물'은 가면(mask)이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페르소나(persona)에서 연유하였다.

이는 고대 극장에서 배우들이 가면으로 연극의 특성상 극적인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에서 시작되었다. 하나의 개별적 인물 즉 다른 사람과 구별되

는 특성을 지닌 인물로서의 성격(character)과 연결되는 개념이다.⁵⁾

영화에서 주연배우는 매우 중요한 존재감을 가진다. 주연배우의 연기는 영화의 미장센에 있어서 촬영 및 프로덕션 디자인과 더불어 심대 핵심 요소를 이룬다. 제 아무리 촬영을 잘하고, 세트를 잘 만들어도 주연배우의 연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되고 만다. 그만큼 연기가 중요하다는 뜻이다.⁶⁾

영화 연기의 범주는 크게 주연(主演), 조연(助演), 단역(端役)으로 나뉜다. 이 3가지의 조화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연의 연기다. 따라서 주연배우가 결정된다면, 영화의 절반은 완성된 셈이다. 따라서 주연배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스타 페르소나(star persona)를 지닌 배우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국내에는 그런 배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⁷⁾

그럼, 스타 페르소나란 무엇인가? 한 스타(주연 연기자급)가 자신이 출연하는 여러 작품을 통해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스크린 상의 집합적 창조물을 말한다. 따라서 개별적인 영화에서 보이는 어떤 일회성 연기보다 훨씬 대단한 것이다.⁸⁾고 정의할 수 있다. 더 쉽게 말하면, 실제 배우가 영화에서 매번 특정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형성된 스크린 상의 이미지가 곧 스타 페르소나가 되는 것이다.⁹⁾

주연급 연기자들은 일반적으로 퍼스널리티 스타(personality star)와 캐릭터 스타(character star)로 나누어지는데, 한석규는 퍼스널리티를 대표하는 배우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영화에 출연할 때마다 늘 동일한 인물 유형을 보여주는 스타를 말하는데, 이들은 어떤 역할을 맡든지 간에 늘 자신의 개성이 더욱 부각되는 그런 스타의 전형이다. 이와는 달리 캐릭터 스타는 그들이 맡은 배역들이 더욱 부각되는 그런 스타들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송강호, 황정민, 문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¹⁰⁾

5) 서정남, 영화의 작중 인물·성격에 관한 논고, 한국영화학회, 1997, pp.218-250.

6) 김시무, 스타 페르소나와 관객간의 상호 연관성 연구, 한국영화학회, 영화연구 32, 2007, p67

7) 김시무, 스타 페르소나와 관객성, 한국영화학회, 2007, p57

8) Stephen Prince, Movie and Meaning: An Introduction, Allyn and Bacon, 1997, p.88

9) 김시무, 스타 페르소나, 아모르문디, 2018, p34

10) 김시무, 스타 페르소나 : 한석규의 연기세계, 현대미학사, 2018, p.59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다. 퍼스널리티 스타와 캐릭터 스타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며, 한 배우에게서 두 가지 속성을 발견할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것이다. 요컨대 그러한 구분이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배우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연기 스타일도 일종의 기표로 본다면, 그것이 놓이는 맥락에 따라서 기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양쪽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¹¹⁾

그렇다면 최민식의 스타페르소나는 어떤 속성이 있는지 영화 캐릭터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3. 최민식의 캐릭터별 사례분류

3-1. 영화 속 **非**악역 캐릭터

최민식의 캐릭터 중에 **非**악역만을 분류해 보았다. **非**악역이라고 해서 모두 착하고 선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 판단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역할로만 선별해 보았다. 먼저, 본문 내용의 구성은 3가지 유형의 캐릭터 모두 동일하게 최민식이 출연한 영화 속에서 ‘역할’, ‘홍행유무’ ‘파트너(partner)’, ‘장르’ 등을 내용과 도표로 정리해 보았다.

최민식은 <넘버 3>(1997)에서 검사지만 강패보다 더 과격한 마동팔 역을 맡는다. 내용을 보면 폭력조직 강패였던 태주(한석규)가 하극상 쿠데타에서 보스를 피신시켜 조직의 넘버 3이 된다. 이후, 태주는 조직의 호텔 인수 건을 맡지만 마동팔이 사사건건 훼방을 놓는다.

홍행을 보면 개봉 당시 박스 오피스 전산화 이전에 상영한 관계로 정확한 스코어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 영화 데이터베이스(KMDB)에 의하면 서울 관객수가 약 29만 명으로 흥행 순위는 20위. 한국영화만 보면 6위에 해당했다. 그러나 당시 2차 판권 시장인 비디오 대여 시장의 경우는 기록으로 보존하지 않았지만 스테디 셀러였다고 한다.¹²⁾ 이에 흥행 성공이라고 간주한다.

<취화선>(2002)에서 화가 장승업 역을 한다. 조선 시대 말기의 한양 땅. 어린 장승업은 거리의 부랑자로 떠돌다 개화파 선비 김병문(안성기)에 의해 목숨을 건지고 그림의 소질을 계발한다. 천재를 타고난 덕에 곧 걸출한 화원이 되고 궁중에까지 진출하지만, 술과 여자

에 탐닉하고 방랑벽이 심한 탓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다. 시대적 격랑과 예술적 갈등 사이에서 방황하던 장승업은 결국 모두의 곁을 영원히 떠나는 길을 택한다.¹³⁾ <취화선>은 제55회 칸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지만 관객수는 43만 명으로 흥행에 실패한다.

<꽃피는 봄이 오면>(2004)에서 음악 선생님 현우 역을 맡은 최민식은 교향악단 연주자를 꿈꾸지만 현실의 벽은 높지만 하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연인과 헤어지고 강원도 도계중학교 관악부 임시 교사로 부임하게 된다. 그곳의 환경은 열악했고 설상가상으로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못하면 강제 해산되는 상황이었다. 그런 아이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외면할 수 없었던 현우는 대회 준비에 바쁜 나날을 보내며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학생과 마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치유받는다. 2004년도 박스 오피스 순위는 50위로 전국 관객수는 47만 명으로 흥행에 실패한다.

<주먹이 운다>(2005)에서 한때 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 복서였지만 지금은 은퇴한 태식 역을 연기했다. 태식은 도박 빛과 공장 화재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며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다. 할 수 있는 건 오직 권투뿐인 그는 생계를 위해 길거리에서 권투를 한다.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에게 복싱대회에 참가할 기회가 오고 결국, 결승까지 오며 가정을 지키려는 가장의 모습을 보여준다. 2005년도 박스 오피스는 24위로 전국 관객수는 146만 명으로 흥행에 실패한다.

<히말라야, 바람이 머무는 곳>(2009)에서 40대 기러기 아빠 최 역을 맡은 최민식은 동생 공장에서 우연히 네팔 청년 도르지의 장례를 목격한다. 동생의 부탁으로 도르지의 고향 히말라야로 간 그는 가족에게 차마 그가 죽었다는 말은 못 하고 친구로서 왔다는 거짓 말과 함께 도르지의 돈만 건넨다. 그 뒤 히말라야의 대자연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찾아간다.

이 영화는 흥행실패에 관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 최민식이 공백을 갖고 복귀한 작품이었고 서사적인 구조와 관념적인 내용이었다. 둘째, 독립영화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작품성에 대한 수상 평가만 보면, 국내외 영화제에서 수상한 이력이 없다. 참고로 독립영화 역대 흥행 1위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로 478만 관객을 모았다. 상대적으로긴 하지만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여 흥행 실패로 봤다.

<명량>(2014)에서 이순신 장군 역을 맡은 최민식은

11) 김시무, 스타 페르소나, 아모르문디, 2018, p96

12) www.namu.wiki

13) 씨네21, 허문영, [Review] 취화선, 2002.05.07

1597년 임진왜란 6년 12척의 배를 이끌고 명량 해전을 승리로 이끄는 모습을 보여준다. 악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카리스마를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 최고의 흥행을 다시 썼다.

〈대호〉(2015)에서 조선 명포수 천만덕 역을 맡은 최민식은 일제강점기 시절 포수를 그만두고 지리산 오두막에서 아들과 살고 있다. 한편, 마을에선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인 대호를 찾느라 혈안이 되고 조선 최고의 전리품인 호랑이 가죽에 매혹된 일본 고관은 대호를 잡기 위해 일본군과 조선 포수대를 보내고 마지막 수단으로 천만덕을 영입하지만 오히려 대결을 하기보단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대호와 동병상련을 느끼며 함께 죽음을 맞이한다. 2015년 박스 오피스 순위는 40위로 관객수가 176만 명에 그쳐 실패했다. 그 이유는 전문가들이 말하길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 인간과 동물의 교감이란 소재부터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했고 강유정 영화평론가도 “인간과 동물의 교감이란 명제가 <국제시장>에 담긴 아버지의 희생이나 정(情)만큼 보편적이지 않다.”¹⁴⁾라고 말했다.

이렇게 최민식이 출연한 19편 중에 비악역은 7편(36.8%)의 비율을 보였다. 단독 주연은 7편 중 4편(57.2%), 공동 주연은 3편(42.9%)으로 근소하게 단독 주연이 다소 높았다. 단독 주연과 공동 주연의 흥행 성공률을 보면 단독 주연은 모두 실패하였고 공동 주연으로 흥행에 성공한 영화는 <넘버 3>, <명량>, 2편이고 이 2편의 공통점은 장르 속에 액션이 포함되고 있다. 흥행에 실패한 5편의 장르를 보면 드라마만 단독으로 있거나 드라마에 멜로, 로맨스가 포함된 혼합 장르였다. 의외로 류승범과 공동 주연을 한 <주먹이 운다>의 경우는 액션이 포함된 드라마인데도 실패하였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비악역 캐릭터 이미지

개봉 년도	역이미지	영화 제목	관객(만 명)	장르
		캐릭터 역할	흥행여부	
1997 08.02		넘버 3	29	코미디 범죄 액션
		검사	성공	
역할	공동주연 : 한석규, 이미연			

2002 05.10		취화선	43	드라마
		장승업	실패	
역할 단독주연				
2004 09.23		꽃피는 봄이 오면	47	멜로 로맨스 드라마
		음악선생님	실패	
역할 단독주연				
2005 04.01		주먹이 운다	146	액션 드라마
		은퇴한 복서	실패	
역할 공동주연 : 류승범				
2009 06.11		히말리아, 바람이 머무는 곳	8,986명	드라마
		최(유골전달)	실패	
역할 단독주연				
2014 07.30		명량	1,761	액션 드라마
		이순신 장군	성공	
역할 공동주연 : 류승룡, 조진웅				
2015 12.16		대호	176	드라마
		조선 명포수	실패	
역할 단독주연				

3-2. 영화 속 악(惡) 역 캐릭터

영화 속 최민식의 역할 중에 도덕적 정서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악(惡) 역 캐릭터를 조사했다.

〈조용한 가족〉(1998)에서 삼촌 강찬구 역을 맡은 최민식은 형 강대구(박인환)의 가족과 산장을 개업한다. 그러나 산장에 오는 손님마다 아이없게 죽는 사태가 발생하고 산장이 망할까 봐 두려웠던 가족과 강찬구는 그들의 영위를 위해 스스로 죽은 손님을 암매장하거나 살인을 도모하는 등 예기치 못한 촌극을 만든다. 흥행 기록을 보면 서울 관객 수는 34만 명이였다. 보도에 의하면 “이 영화는 개봉되자 평단의 찬사와 마니아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흥행에도 성공했다. 1998년도 한국영화 흥행 순위 6위”¹⁵⁾이었다고 한다.

〈쉬리〉(1999)에서 북한 특수요원 박무영 역을 맡은 최민식은 대원들과 함께 남한으로 침입, 시한폭탄을 탈취하고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태롭게 만든다. 흥행 기사를 보면 “1999년 강제규 감독의 <쉬리>는 당시 최고의 관객 기록을 세우고 있던 <타이타닉>(350만)을 뒤

14) 중앙일보, 대결 아닌 교감 앞세운 ‘대호’, 관객은 낮설었다, 2016.01.10

15) 국제신문, [조용한 가족] 이룸도 생소한 ‘코미 잔혹극’... “최민식 송강호의 ‘조연’ 시절” 2018.02.25

어넘으며 최초 500만 관객 시대를 열었다. 외국 영화에서나 보던 블록버스트급 액션을 선보이며 한국 영화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¹⁶⁾라고 전했다.

〈친절한 금자씨〉(2005)에서 백 선생 역을 맡은 최민식은 금자(이영애)의 복수 대상으로 나온다. 그 이유는 백 선생이 금자의 아이를 유괴하고 게다가 금자에게는 유괴한 다른 아이의 살해 죄를 대신 누명을 씌우며 고도소에 복역하게 만든다. 흥행 기사를 보면 “〈친절한 금자씨〉가 개봉 전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¹⁷⁾라고 보도했다. 2005년 박스 오피스는 7위였고 전국 관객 수는 312만 명으로 흥행에 성공한다.

〈악마를 보았다〉(2010)에서 경찰 역을 맡은 최민식은 연쇄살인마 사이코패스 연기를 보인다. 수현(이병헌)의 약혼녀를 죽이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난 후 사지를 절단하고, 밥 먹듯이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인다. 흥행 기사를 보면 “한국 상업영화 최초로 상영 불가를 의미하는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고 두 번의 반려 끝에 청소년 관람불가로 상영 등급을 낮췄다.”¹⁸⁾라고 보도했다. 2010년도 박스 오피스는 27위이고 최종 관객은 181만 명이 입장하여 흥행에 실패한다.

〈범죄와의 전쟁〉(2012)에서 최익현 역을 맡은 최민식은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하는 비리 공무원이었다. 우연히 밀수단이 반입하려던 필로폰이 포착되고 한몫 크게 챙기자는 마음으로 세관원 옷을 벗고는 마약을 팔기 위해 부산 최대 조직의 보스 형배(하정우)를 만난다.¹⁹⁾ 그러나 그 조직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신하는 비열한 모습을 보인다. 기사를 보면 “약 470만 명의 관객 누적수를 기록한 흥행작.”²⁰⁾이라고 보도했다. 2012년 박스 오피스 순위는 8위이고 최종 관객 수는 472만 명으로 흥행에 성공한다.

〈신세계〉(2013)에서 경찰청 수사 기획과 강 과장 역을 맡은 최민식은 최대 조직폭력배의 회장이 사망하

자 후계자 자리를 놓고 작전을 세운다. 후계자로 꼽히는 정청(황정민) 사이에 신입 경찰관 시절 강 과장에게 스카우트돼 신분을 숨긴 채 조직원으로 산 이자성(이정재)을 통해 조직을 경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한다. 경찰이지만 문제 해결 속에서 측근들의 희생을 묵인하는 냉정한 모습을 보인다. 기사를 보면 “개봉 5주 차 초입에 400만 관객을 돌파하며 박스 오피스 3위를 달리고 있다.”²¹⁾라고 보도했다. 2013년 박스 오피스 12위로 최종 관객은 468만 명으로 흥행에 성공한다.

〈루시〉(2014)에서 범죄조직의 보스 미스터 장 역을 맡은 최민식은 평범했던 루시(스칼렛 요한슨)를 연루시켜 특수한 약물 운반책으로 이용한다. 운반 방법은 뱃속에 넣은 채 밀수하는 방식, 그러나 주머니가 터지면서 대량의 약물에 노출되며 초인적인 힘을 얻는다. 그녀의 밀수 실패로 엉망이 된 미스터 장은 그녀를 없애기 위해 쫓지만 오히려 당하고 만다. 흥행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 27개국의 박스오피스를 점령하며 흥행 수익 2억 달러 고지를 돌파했다.”²²⁾라고 전했다. 2014년 국내 박스 오피스는 30위이고 최종 관객은 197만 명이 입장했지만 해외 감독과 배우라는 특수성과 해외에서 먼저 개봉한 점과 해외 총수입은 4억 달러라는 점을 고려하여 흥행 성공이라고 결론지었다.

〈특별시민〉(2017)에서 정치인 변종구 역을 맡은 최민식은 정치야육이 큰 인물로 나온다. 그는 서울시장 3선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숨기기 위해 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고 상대 후보의 흠집을 위해 어떤 방법이든 조작도 불사한다. 2017년 박스 오피스는 49위이고 최종 관객 수는 136만 명으로 흥행에는 실패한다.

이렇게 최민식이 출연한 총 19편 영화 중에 악(惡)역이 8편(42.1%)의 비율을 보였다. 단독 주연은 8편 중 한 편도 없고, 공동 주연은 8편(100%)이었다. 단독 주연은 한 편도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공동 주연의 흥행 성공률을 보면 흥행에 성공한 영화는 6편(75%)으로 장르를 보면 〈조용한 가족〉 코미디 스릴러 범죄, 〈쉬리〉 액션 멜로 로맨스, 〈친절한 금자씨〉 스릴러 드라마, 〈범죄와의 전쟁〉 범죄 드라마, 〈신세계〉 범죄 드라마, 〈루시〉 액션이다. 공통점은 액션, 범죄, 스릴러와 드라마가 혼합된 장르였다. 실패한 영화를 보면 〈특별시민〉은 비악역처럼 드라마 단일 장르라는 공통점이

16) 조선일보, 천만 돌파 한국 영화 9개, 최다 관객 영화는 ‘괴물’, 배우는 ‘송강호’ 2014.01.27
 17) 중앙일보, ‘친절한 금자씨’ 손익분기점 넘어서..., 2005.07.29
 18) 조선일보, ‘악마를 보았다’ 논란이 낳은 흥행, 어디까지?, 2010.08.17
 19) 조선일보, 김명환 문화 [김명환의 씨네카테일] ‘범죄와의 전쟁’ 빛낸 건달과 일반인 사이 최민식의 ‘반달’ 연기, 2012.02.09
 20) 조선일보, 범죄를 다룬 영화, 관객수 470만의 기록 ‘범죄와의 전쟁’ 그 흥행이유는? ‘혼한 조폭영화가 아니다’, 2015.12.08

21) 조선일보, 문화면, ‘신세계’ 황정민의 연속 흥행, 늦바람 무섭구려, 2013.03.20
 22) 동아일보, 최민식 출연 ‘루시’, 27개국 박스오피스 1위... 흥행수익 2억 달러 돌파, 2014.08.27

있었다. 예외적으로 이병헌과 공동 주연한 <악마를 보았다>는 범죄 스릴러지만 폭력 수위가 높아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아 역효과 난 케이스라 볼 수 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표 2]과 같다.

[표 2] 악역 캐릭터 이미지

개봉 년도	역이미지	영화	관객(만 명)	장르
		캐릭터 역할	흥행여부	
1998 04.25		조용한 가족	38	코미디 스릴러 범죄
		삼촌	성공	
역할	공동주연 : 송강호, 이윤성, 고호경			
1999 02.13		쉬리	620	액션 멜로 로맨스
		북한 특수요원	성공	
역할	공동주연 : 한석규, 송강호, 김윤진			
2005 07.29		친절한 금자씨	312	스릴러 드라마
		유괴범 백선생	성공	
역할	공동주연 : 이영애			
2010 08.12		악마를 보았다	181	범죄 스릴러
		싸이코 살인마	실패	
역할	공동주연 : 이병헌			
2012 02.02		범죄와의 전쟁	472	범죄 드라마
		부패한 세관원	성공	
역할	공동주연 : 하정우			
2013 02.21		신세계	468	범죄 드라마
		비정한 경찰상관	성공	
역할	공동주연 : 이정재, 황정민			
2014 09.03		루시	197	액션
		마약깡단 보스	성공	
역할	공동주연 : 스칼렛 요한슨, 모건 프리먼, 애널리 틱튼			
2017 04.26		특별시민	136	드라마
		부패한 정치인	실패	
역할	공동주연 : 곽도원, 심은경, 문소리, 라미란, 류혜영, 이기홍			

3-3. 영화 속 반전 캐릭터

영화 속 최민식의 역할에서 선과 악처럼 한 가지의 성향을 보기보다는 캐릭터 특징이 영화 초반과 중반부 그리고 결말에 이르는 과정 중에서 하나의 이미지가 아닌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역만을 조사해 보았다.

<해피엔드>(1999)에서 은행원 남편 서민기 역을 맡

은 최민식은 실직 후 오랜만에 일상의 여유를 느끼는 중이다. 서민기의 아내 최보라(전도연)는 영어학원 원장인데 대학 연인인 김일범(주진모)과의 은밀한 만남을 이어간다.²³⁾ 결국, 아내의 밀회를 눈치챈 서민기는 아내를 죽이고 김일범을 범인으로 만든다. 평범한 남편의 모습에서 자신의 치정 살인 알리바이를 치밀하고 완벽하게 만든다. 기사를 보면 “해피엔드의 흥행성공의 원동력은 불륜 커플의 격렬한 섹스와 오쟁이진 남편의 격렬한 복수의 케미로 인해 서울 관객은 46만 명, 전국 관객은 127만 명의 흥행성적을 냈다.”²⁴⁾고 전했다.

<파이란>(2001)에서 3류 건달 강재 역을 맡는다. 지질학 인생을 살던 강재는 과거 불법 체류자였던 아내(장백지)와 서류상의 결혼을 한다. 그 뒤 그녀의 장례를 치르라는 연락을 받고 뒷수습을 하러 떠난 기차 안에서 그녀의 마음을 알게 되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모습을 보인다. 기사 내용을 보면 2001년 흥행순위 한국영화(서울 관객)와 외국영화(서울 관객) 통틀어 30위 안에 들지 못했다. “개봉 당시 모든 면에서 호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흥행성적을 기록했던 불운한 작품이다.”²⁵⁾라고 나와 있다.

<올드보이>(2003)에서 평범한 가장 오대수 역을 맡는 최민식은 술에 취해 집에 가는 길에 납치 감금된다. 그렇게 복수를 다짐하며 15년 만에 풀려난 오대수는 자신을 감금한 이우진(유지태)의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에서 미도(강혜정)를 만나 사랑하고 결국, 고등학교 때 자신의 말로 인해 이우진의 누나가 자살한 것을 알게 된다. 이우진이 그렇게 15년 동안 감금했던 오대수를 굳이 풀어준 이유는 미도와외의 근친상간을 하게 하여 복수하기 위함이었다. 결국, 오대수는 스스로 혀를 자르며 속죄하고, 그 모습을 본 이우진은 자살하고 만다. 흥행 기사를 보면 “<올드보이>의 개봉 당시 누적 관객 수는 327만 명으로 손익분기점을 돌파했다.”²⁶⁾라고 보도했다. 흥행에 성공했다.

<침묵>(2017)에서 재력가 임태산 역을 맡은 최민식은 그의 약혼녀이자 유명 가수인 유나(이하늬)가 살해당한다. 용의자로 딸 미라(이수경)가 지목되고 임태산은 그날의 일을 기억 못 하는 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 최희정(박신혜)을 선임한다. 딸의 변호를 위

23) 씨네21, 해피엔드 영화정보

24) 씨네21, 1999년 한국영화 결산 [1] - 올해의 영화, 1999.12.28.

25) 씨네21, 2001년 한국영화 10대 사건 [1], 2001.12.27

26) 조선일보, 이재은, 영화 ‘기생충’ 흥행할까...역대 칸 수상작 성적표는?, 2019.05.28.

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하지만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갖고 있던 유나의 팬 김동명(류준열)에 의해 딸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조작 영상을 만든 임태산의 행적이 드러난다. 2017년 박스 오피스 50위 밖으로 관객 수는 49만 명을 동원하며 흥행에 실패한다.

이렇게 최민식이 출연한 총 19편 영화 중에 반전 역은 4편(21%)의 비율을 보였다. 단독 주연은 4편 중 한 편도 없고, 공동 주연은 4편(100%)이었다. 단독 주연은 한 편도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공동 주연의 흥행 성공률을 보면 흥행에 성공한 영화는 2편(50%)으로 장르를 보면 <해피엔드>는 스릴러, <올드보이>는 미스터리 드라마였다. 실패한 영화 장르는 <파이란> 멜로, 로맨스가 들어간 혼합장르이고 <침묵>은 드라마 단독 장르였다. 캐릭터 역할 흐름을 보면 <해피엔드>, <올드보이>, <침묵>은 선에서 악으로 <파이란>은 악에서 선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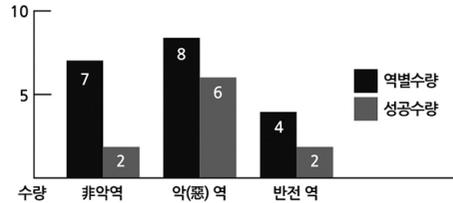
[표 3] 반전 캐릭터 이미지

개봉 년도	역이미지	영화	관객(만 명)	장르
		캐릭터 역할변화	흥행여부	
1999 12.11		해피엔드	127	스릴러
		실업자남편 선 → 악	성공	
역할	공동주연 : 전도연, 주진모			
2001 04.28		파이란	22	멜로 로맨스 드라마
		3류 양아치 악 → 선	실패	
역할	공동주연 : 장백지			
2003 11.21		올드보이	327	미스터 리 드라마
		평범한 가장 선 → 악	성공	
역할	공동주연 : 유지태, 강혜정			
2017 11.02		침묵	49	드라마
		재력가 아버지 선 → 악	실패	
역할	공동주연 : 박신혜, 류준열, 이하늬			

4. 결론 및 과제

본 연구는 최민식의 필모그래피를 흥행 성공 유무로 살피면서, 흥행을 결정하는 변수로 ‘역할’, ‘장르’, ‘파트너(partner)’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석 대상인 19편의 영화 중에 배역별 흥행 성공률은 아래 [그림 1]처럼 ‘非악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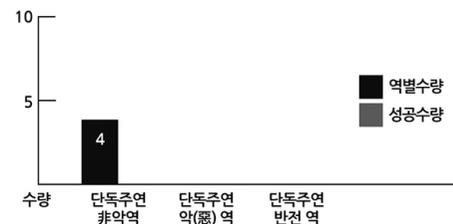
은 7편 중 2편(28.6%), ‘악역은 8편 중 6편(75%), ‘반전’ 역할은 4편 중 2편(50%)이었다. 반전 역(役)의 경우도 성공한 영화는 역할 흐름이 악역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림 1] 배역별 흥행 성공률

장르를 분석해 보면 성공한 경우는 범죄, 액션, 스릴러, 미스터리, 코미디 등이 혼합된 드라마 장르 분포가 다수였다. 코미디 장르가 포함된 경우는 <넘버 3>, <조용한 가족>으로 데뷔 초 작품들이었다. 실패한 장르는 로맨스, 멜로가 포함되거나 드라마 단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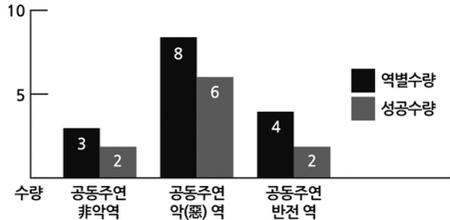
주연 역(19편) 중에서 단독 주연은 4편(21.1%), 공동 주연은 15편(78.9%)으로 나누는데, 단독 주연의 역할 수량은 非악역 4편(100%), 악역, 반전 역은 0편(0%)으로 흥행에는 모두 실패했다. 아래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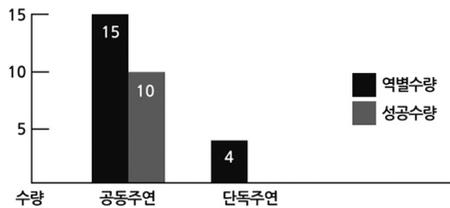
[그림 2] 단독 주연 흥행 성공률

공동 주연의 경우는 아래 [그림 3], [그림 4]처럼 非악역이 3편(20%), 악역은 8편(53.3%), 반전 역은 4편(26.7%)이었다. 그 중에 역할 흥행 성공률은 非악역이 2편(66.7%), 악역은 6편(75%), 반전 역은 2편(50%)이었다. 전체적으로 공동 주연은 15편중에서 10편(66.7%)의 성공률을 보였다. 이로써 최민식은 단독 주연 보다는 공동 주연을 통해 상대적으로 다른 주인공과의 대립적인 모습이나 차별성을 두는 것이 그의 캐릭터를 돋보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배역으

로 본다면 악역을 맡거나 악역으로 마무리가 되거나 또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베이스로 한 非악역을 통해 범죄, 액션, 스릴러의 장르가 조합을 이룬다면 흥행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 공동 주연 흥행 성공률



[그림 4] 공동주연 VS 단독주연 흥행 수량 비교

19편의 캐릭터별 성향에 따른 장르별 흥행 성공의 유무를 분석 해 본 결과 [표 4]를 얻어 낼 수 있었다. 동일하게 중복되는 장르의 경우는 하나만 표기하였다.

[표 4] 배역 및 흥행장르 분포표

	非악역	악(惡)역	반전역
흥행성공 장르분포	코미디 범죄 액션 드라마	코미디, 스릴러 범죄 액션 멜로 로맨스 스릴러 드라마 범죄 드라마	스릴러 미스터리 드라마
흥행 성공실패 중복 장르분포	액션 드라마	범죄	
흥행실패 장르분포	멜로 로맨스 드라마 액션 드라마 드라마	범죄 스릴러 드라마	멜로 로맨스 드라마 드라마

사실 본 연구는 향후 보완 과제를 적잖이 안고 있다. 우선, 한국영화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영화에 투입한 제작비나 이에 따른 손익 분기점이 되는 관객수가 정확히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때문에 영화의

흥행 성공 유무를 철저히 다루진 못했다.

영화라는 상품의 흥행에는 일반 제조업 상품의 성공 인자(因子)보다 더욱 복잡한 요인들이 존재한다.²⁷⁾ 영화가 상영되기까지 '제작', '배급', '상영'이라는 큰 과정이 있다고 할 때, '제작' 단계에서만 '스타의 출연 여부', '감독이 가지는 영향력', '영화의 장르', '상영 등급' 등 다양한 흥행 변수가 있다.²⁸⁾

그러므로 최민식 출연작의 흥행 변수로 '역할', '장르', '파트너(partner)'의 영향만 분석한 것은 명확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파트너(partner)'의 경우, 그 배우가 지닌 흥행 파워도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까다로운 요소다.

차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흥행과 최민식이 지닌 스타 페르소나의 상관성을 좀더 입체적으로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2019년에는 허진호 감독의 <천문:하늘을 묻는다>(가제) 영화에서 20년 만에 한석규와 같이 호흡을 맞추는 장영실 역으로 공동 주연을 맡았다. 과연 이 영화에서 최민식은 <명량> 이후에 악(惡)역이 아닌 非악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흥행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매우 기대된다.

참고문헌

1. 김시무, [스타 페르소나], 아모르문디, 2018
2. 강준만, [선사인 지식노트], 인물과 사상사, 2008
3. 김형석, [영화 마케팅 비즈니스], 문지사, 1999
4. 김시무, [스타 페르소나 : 한석규의 연기세계], 현대미학사, 2018
5. Stephen Prince, Movie and Meaning: An Introduction, Allyn and Bacon, 1997
6. 김시무, 스타 페르소나와 관객간의 상호 연관성 연구, 한국영화학회, 영화연구 32, 2007
7. 김시무, 스타 페르소나와 관객성, 한국영화학회, 2007

27) 김형석, 영화 마케팅 비즈니스, 문지사, 1999, p.193.

28) 전개서, pp.193~194.

8. 서경남, 영화의 작중 인물 · 성격에 관한 논고,
한국영화학회, 1997
9. www.chosun.com
10. joongang.joins.com
11. www.kookje.co.kr
12. www.donga.com
13. www.cine21.com
14. movie.naver.com
15. www.kobis.or.kr
16. www.kmdb.or.kr
17. www.namu.wiki